조선 후기 불상 발원문 망라하다

최선일 위원, 〈불교조각 발원문 선집〉 발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부처님과 보살을 형상화 한 '불상'에는 다양한 복장물들이 들어간다. 복장물에는 경전부터 귀금속, 후령통과 함께 발원문도 포함돼 있다. 특히 발원문은 불상의 조성 시기와 이유들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기록으로 불상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하지만, 발원문은 불상 내부에 봉안된 복장물이어서 연구자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최선일 문화재청 감정위원이 최근 발간한 〈조선 후기 불교조각 발원문 선집〉은 가치가 크다.

총 3권으로 발간된 〈조선 후기 불교조각 발원문 선집〉은 953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다. 선집에는 총 234건(1권 62건 · 2권 83건 · 3권 89건)의 불상 조성 및 개금발원문 원문과 사진이 수록됐다.

이는 모두 최 위원이 20년 동안 직접 조사하고 수집한 것들로, 선집에는 시대별로 분류해서 게재했다. 1권은 17세기 전반이며 2권은 17세기 후반, 3권은 18세기~20세기 초반까지다.

조선 후기 조각승들의 활동과 계보들을 연구하는 최 위원은 일찍부터 발원문이 가지는 사료적 중요성을 파악했다.

20년 간 전국 사찰 불상들을 조사하면서 스님과 동료 연구자로부터 불상 발원문 사진과 복사본을 구했으며, 발원문은 틈틈이 석문(釋文) 작업을 했다. 모르는 한자는 학문적 스승인 송광사 박물관장 고경 스님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최 위원은 "불교조각에 관련된 문헌기록인 발원문, 묵서, 사적기 등은 사찰에 비장돼 접근이 어렵다. 기존 공개된 문헌기록은 원본 사진을 보며 석문작업을 해서 오탈자가 많아 반드시 원문을 구해 보는 습관이 생겼다"면서 "당대 최고 학승이셨던 故 지관 스님이 정리하신 〈한국고승비문선집〉 같은 저서를 보면서 이 같은 작업이 후학들에게 발품을 팔지 않고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선행 작업임을 알았다"고 말했다.




최선일 문화재청 감정위원이 〈조선 후기 불교조각 발원문 선집〉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총 3권, 953페이지 방대한 분량
불상 234건 발원문 원문 수록해
20년 수집… 향후에도 조사 계속
문화 · 인물사 기초 연구작업 '중요'
"발원문 선집, 누군간 해야 할 일"

이어 발원문과 같은 문헌 기록들은 불교미술사 연구 영역을 확장시켜줄 수 있다고 봤다. 실제, 발원문 등 문헌기록은 불상이 어떻게 · 누가 · 왜 조성했는지를 알게 하며, 이를 통해 당시 사찰 경제 · 문화부터 인물교류사까지 연구를 확장할 수 있게 한다.

최 위원은 "발원문은 불상을 만든 시기, 봉안처, 연화질, 시주질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돼 불교 조각사뿐만 아니라 지역사와 인물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면서 "간기 · 전적 등 흩어진 자료들을 수집 · 집성해야 불교미술 연구가 풍성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최 위원은 〈조선 후기 불교조각 발원문 선집〉을 시리즈로 계속 발간할 계획이다. 불상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최 위원은 "지금도 발원문 연구와 수집은 계속 진행 중"이라며 "우리나라 불교조각과 관련된 문헌 기록은 대략 400여 건에 이른다. 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정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환 스님, 계정혜 연구 · 실천 선지식"

한국불교선리연구원, 21일
인환 대종사 추모학술대회

원적 1주기…생애 · 사상 조명
"선정과 학문 통해 선교일치"
2백여 대중 참석… 스님 추모

조계종 원로의원을 지낸 인환 스님〈사진〉의 생애와 사상을 학술적으로 살펴보는 학술대회 열렸다.

한국불교선리연구원(원장 법진)은 10월 21일 한국근대불교문화기념관 만해홀에서 '호암당 인환 대종사의 생애와 사상'을 주제로 추모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인환 스님 원적 1주기를 맞아 열린 추모학술대회에서는 인환 스님의 생애와 선학 · 율학 연구에 대해 조명하는 연구논문들이 발표됐다.

인환 스님의 제자로서 회고록 인터뷰를 진행한 최동순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호암당 인환 대종사의 생애와 스승 원허 스님과의 불연'을 통해 스님의 생애 전반을 개괄적으로 살폈다.

최 교수는 인환 스님을 "계 · 정 · 혜 삼학을 연구하고 실천한 율승, 선승, 학승"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인환 스님은 자교오종(藉敎悟宗)으로서 선의 실천을 교리적 바탕에 뒀다. 계율과 선정의 실천을 불교학연구와 일치시켜 선교일치를 실현했다"면서 "또한 캐나다에 대각사를 개산해 북미포교를 했고, 교수 은퇴 이후에는 포교사로서 법회활동을 활발하게 했다. 그는 연구자이면서 교수였으며, 포교사이자 전계사였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인환 스님이 보여준 폭넓은 수행 이력은 스승인 원허 스님의 영향이라는 게 최 교수의 분석이다. 지계행은 인환 스님이 은사 원허 스님을 따른 것으로, 원허 스님 역시 안성 청룡사 용허 율사의 영향을 받았다. 평생 수좌들 지원에 헌신했던 원허 스님이 지계청정의 모범이었던 점은 청담 등 마하연을 방문했던 많은 스님들이 증언한 바 있다.

또한 원허 스님은 학승은 아니었으나 불교계 엘리트들을 중심으로 금강산불교회를 조직하고 김태흡과 석전 박한영 등의 연구자를 지원했다.

최 교수는 "인환 스님은 연구와 학술발표는 활발했으나 법맥제자 양성과 도량 개산 등은 하지 않았다. 유품도 학술 관련 서책과 문서로 이는 스승 원허의 무소유와 관련이 있다"면서 "원허 스님은 표훈사와 낙산사 주지를 역임했으나 옷 가지 1~2벌만 남겼다. 인환 스님은 그런 스승의 무소유 정신을 계승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신규탁 연세대 철학과 교수가 '호암당 인환 대종사의 선학 연구와 사상'을, 이자랑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가 '호암당 인원 대종사의 계율학 연구와 사상'을 각각 발표했다.

한편, 인환 스님은 1931년 원산 출생으로 6.25한국전쟁 중 남한으로 피난왔다가 불문에 귀의하게 됐다.1952년 선암사에서 효선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인환 스님은 1953년 선암사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56년 해인사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1964년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1966년 동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1975년 '신라불교 계율사상 연구' 논문으로 일본 도쿄대 문학박사를 취득한 후 1982년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로 부임해 1996년 정년퇴임까지 불교대학장, 불교문화연구원장, 정각원장 등을 역임했다. 2011년 조계종 원로의원으로 추대됐으며, 그해 대종사 법계를 품수했다. 서울 삼각산 경국사 환희당 한주로 주석해오던 스님은 지난해 10월 26일 원적에 들었다.

신성민 기자

학 술 단 신

불교는 서구에 어떻게 수용됐을까

동국대 인문학연구소 · 신라문화연구소 학술대회

10월 31일 동국대 경주캠서

서구는 불교를 어떻게 수용했는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동국대 인문학연구소와 신라문화연구소는 10월 31일 오후 2시 동국대 경주캠퍼스 100주년기념관 5층 D501에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서구로 간 붓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서구에 어떻게 불교가 수용됐는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연구 논문들이 발표된다.

주요연구 논문으로는 △'안티크리스트'에 보이는 니체의 불교 평가와 페시미즘(pessimism)(김영진, 동국대 불교학과) △독일 불교수용사 속의 베버 읽기-막스 베버의 종교사회학과 불교 이해(박용희, 동국대 국사학과) △미국 박물관의 한국 불교 미술품(송은석, 동국대 고고미술사학과) △미국 선불교의 어제와 오늘(김희영, 대구한의대) 등이 발표된다.

발표 이후에는 김종욱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김용태 동국대 한국불교융합학과 교수와 안환기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연구원이 지정토론을 진행한다.

신성민 기자

불교교육연합회, 교학연구발표회

10월 31일~11월 1일 동대부여고서

불교 교육방법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불교교육연합회(회장 윤성이)는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1박 2일간 동국대사범대학부속여자고등학교(교장 박현숙)에서 2019학년도 임시총회 및 제49차 교학연구발표회를 개최한다.

불교교육연합회는 이번 임시총회와 교학연구발표회를 통해 종립학교 간 발전을 도모하고 각급 학교의 교육을 함께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갖는다. 불교교육연합회 산하 교장 및 교법사, 재단 관계자 등이 참가하는 이번 교학발표회는 교학연구논문발표 및 연구수업 주제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불교융합교육'(권진영 교법사)을 중심으로 수업 공개 참관 및 학교 현황 관람 등이 진행된다.

한편, 불교교육연합회는 1962년 창립된 조계종 산하 불교종립학교 연합기구로, 총 12개 법인 학교 28곳(대학교 1곳 · 고등학교 12곳 · 중학교 13곳 · 초등학교 1곳)이 가입돼 있다. 종립학교 학생들의 불교적 인격교육을 위해 매년 △불교교육포럼 △교학연구발표회 △교직원수련대회 △교법사연수회 △불교학생간부수련대회 등을 실시해 왔다. 또한 종교 및 철학 교과서 개발, 불교의례와 포교방법 연구 등 관련분야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신성민 기자

통도사 승려와 불교미술 관계 논한다

불교미술사학회, 11월 9일 추계학술대회

통도사 주석 승려들과 불교미술 관계를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불교미술사학회(회장 송천)는 11월 9일 오전 10시 통도사성보박물관 문화센터에서 '통도사의 승려와 불교미술'을 주제로 제33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우수연구자를 시상하는 영축학술상 시상으로 시작되는 학술대회는 조인수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의 초청강연과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주제발표로는 엄기표 단국대 교수의 '통도사 출신 승려들의 승탑 현황과 의의', 이선용 위덕대 밀교문화연구원 박사의 '통도사 진영에 표현된 가사의 특징',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 사무국장 현주 스님의 '통도사 대웅전 신중도 연구' 등이 발표된다.

연구자들의 발표 이후에는 발표자와 토론자, 청중들이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신성민 기자